

2018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중심적인 이상

메시지 12

그리스도의 몸 — 신성한 경륜의 목표

성경: 딤후 1:4, 엡 1:10, 22-23, 4:4-6, 16, 롬 12:4-5, 16:1, 4, 16

- I.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신격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,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신다는 것이다 — 롬 8:3, 1:3-4, 12:4-5, 계 21:2.
- A.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— 골 1:15-19, 2:9, 19.
 - B. 신성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— 엡 1:10, 3:8-10, 딤후 1:4.
 - C.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표는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외적으로 그분의 모양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갖는 것이다. 그들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과 하나되고 그분을 사는 단체적인 실체,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— 창 1:26, 요 3:15, 벰후 1:4, 엡 4:16.
 - D. 신약의 주요 내용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쁨에 따른 영원한 경륜을 갖고 계시며 그 경륜은 그분 자신을 그분이 선택하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여 그들을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그들을 그분의 복사판으로 만들어 그들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— 엡 3:9-11, 14-21.
 - E.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가 되는 것, 곧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실체가 되는 것이다 — 고전 6:17, 12:12.
 - F.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결과는 하나의 유기체이다. 이 유기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,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.
- II.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것의 최종 완결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— 엡 1:6-8, 22-23.
- A. 은혜는 삼일 하나님의 세 방면에 있어서, 곧 아버지(근원)와 아들(요소)과 그 영(적용) 안에서의 그분의 체현이다 — 고전 15:10, 고후 8:9, 히 10:29.
 - B. 은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들을 가리킨다 — 고후 13:14, 엡 4:4-6, 계 21:2.
 - C.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께서 하나의 유기체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— 요 1:16, 15:1.
 - D.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— 롬 5:21, 12:3-8.
- III. 그리스도의 몸, 곧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 몸의 넷-하나이다 — 엡 4:4-6.
- A. 에베소서 4 장 4 절부터 6 절까지에서 네 인격, 곧 한 몸, 한 영, 한 주님, 한 하나님 아버지가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된 것을 계시한다.
 - 1.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아버지는 근원이시고, 아들은 요소이시며 그 영은 본질이다. 이 셋이 몸과 연합되었다.

2.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셨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며 그분들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.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하고 인간적인 조성체이다 — 엡 3:16-20.
 3.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과 몸은 이제 넷-하나 안에 있다.
- B. 에베소서 4 장 4 절부터 6 절까지에 있는 넷-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는 요한계시록 1 장 20 절에 있는 금등잔대와 일치한다.
1. 예표에서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,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체현인 교회를 상징한다.
 - a. 등잔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하며 부패하지 않는 본성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 — 출 25:31, 벧후 1:4.
 - b. 등잔대의 분명한 형태, 곧 분명한 모양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한다 — 출 25:31.
 - c. 일곱 등불은 영 하나님께서 일곱 영이 되신 것을 상징한다 — 출 25:37, 계 4:5.
 2. 교회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속하신 백성과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등잔대가 된 것이다 — 계 1:20.
- IV.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총만이다 — 엡 1:22-23.
- A. 교회는 몸'이며', 몸은 총만'이다'. 이러한 두 단계의 '이다'는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다.
 - B. 몸은 머리의 총만이고 총만은 머리의 표현이다.
 - C. 그리스도의 총만은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누린 결과이다. 그리스도의 총만은 우리가 체험하고, 우리가 동화하고,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 우리의 요소가 된 그리스도이다 — 엡 3:8.
 - D.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총만이 될 몸을 필요로 하신다. 이 몸은 그분의 표현이 될 그분의 교회이다 — 엡 1:23.
 1.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신다.
 2. 이렇게 위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하여 그분의 총만이 될 교회, 곧 그분의 몸을 필요로 하신다.
- V.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우주적인 관점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— 엡 1:17-23, 행 10:9-11, 계 21:10.
- A.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이다. 몸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를 이루지 못하며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— 롬 12:4-5, 16:1, 4, 16.
 - B.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. 그분은 온 우주 안에서 교회를 얻기 원하신다 — 엡 1:22-23.
 - C.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핵심적이다.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몸을 갈망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주적인 몸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— 엡 4:16.